1. 전시개요

전시제목 | 100%

참여작가 | 손동훈, 김정섭, 이유진

전시기간 | 2020.9.4 (금) ~ 10.31 (토)

전시장소 | 카린 (구. 갤러리 메르씨엘비스)

관람시간 | 11:00AM ~ 07:00PM

문의전화 | 051.747.9305~6



김정섭 Kim Jeongseob

1. 작업노트

본 작업은 적동 구성 시리즈(Compositional Copper Series)중 하나로, Time for Universe Series의 연작입니다. 전작은 현무암에 옻칠 기법을 통한 회화적인 색채를 냈다면 적동 구성 시리즈는 현무암과 옻칠에 적동을 섞어 회화의 맛에 디자인의 대비를 극대화합니다.

작업의 구성은 적동 상판에 하부는 현무암에 옻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무암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화산재로 용암이 굳어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기공들이 있습니다. 이는 세월이 만들어내는 흔적으로 무작위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표면을 지니고 있어 매력있는 소재입니다.

음각의 표면 질감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소재인 옻을 선택해 현무암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런 표면 질감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고, 이에 대한 방법으로 한국 전통 옻칠 기법을 사용해 가구 표면에 색깔를 가미합니다.

방법은 현무암에 옻칠을 여러 색깔로 수십번 겹쳐 올린 뒤, 무작위로 갈아내어 회화적인 텍스쳐를 만들었습니다. 상판은 옻칠의 따뜻함과 회화적인 느낌과 대비를 주기위해 적동을 사용하고 용접한 뒤 손으로 직접 마감했습니다. 대비감을 위해 형태는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지만, 철저히 사람의 손으로 작업합니다.

기계미학으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의 제작방식을 존중하며, 이를 통한 예술적 작품세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중입니다. 현재의 가구는 예술과 디자인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구만으로 예술적 표현을 국한시키지는 않지만, 순수 미술과 실용미술의 사이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 주로 가구로 제 작업세계를 표현합니다.

2. Profile



학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박사 수료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MA Design: Critical Practice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졸업

개인전

2020, 적동구성: Compositional Copper Series, KCDF 공모선정, KCDF 윈도우갤러리, 서울/대한민국

그룹전 및 기획전

2019 APMAP,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뮤지엄, 제주/대한민국

2018 을지로라이트웨이 2018, 청계대림상가, 서울/대한민국

2017 Cartel Nude 2017, Feria Habitat, 발렌시아/스페인

2016 M/Maison, Plus Design Gallery, 밀라노/이탈리아

2015 Tools for a Break, Orangelab, 뮌헨/독일

2014 Material & Matters, 인사아트센터, 서울/대한민국

2013 호텔아트페어 2013, 그랜드힐튼호텔, 서울/대한민국

2012 부산아트쇼, 벡스코, 부산/대한민국

2011 Extraordinary Seats, Appel-Design Gallery, 베를린/독일

2010 Design Miami/Basel, Messe Basel, 바젤/스위스

외 다수

이유진 Lee Yoojin

1. 작업노트

가구는 현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용위주의 개념을 넘어,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심미적 기능의 예술작품으로 가치를 지니며 그 영역 또한 확장되고 있다. 비대칭 조형의 작품들은 기존의 반듯하고 정형화된 가구형태의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형태적 변화를 시도하였고, 이를 면의 비틀림과 꺾임으로 표현하였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면재(面材)의 구조는 조형적 입체감을 부각시키며 의도된 방향성으로 시선의 흐름을 유도한다. 나아가 작품의 직선적인 면 분할과 비대칭적인 형태들은 바라보는 시점과 빛에 따라 새로운 가구와 마주하는 것 같은 효과와 시각적인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검정색 원목 & 금속의 조합

나뭇결을 살린 검정색의 원목은 스테인리스 금속판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면서도 냉정하고 차가운 이미지로써 서로 닮아있다. 이렇듯 두 재료가 지닌 명도와 질감의 대비를 극대화시켜 비대칭적 조형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연적이고 따뜻한 재료인 목재를 의도적으로 차갑게 보이도록 사용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형적 비대칭과 더불어 사고의 비대칭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2. Profile



現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출강

2020 공간입체그리고색 기획초대전 /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

2019 공예트렌드페어 창작공방관 / 서울_코엑스

2018 공예트렌드페어 창작공방관 / 서울_코엑스

2018 Asymmetry Series 展 개인전 / 부산_아트센터

2018 효원목조형회 동문전 / 부산_아트센터

2018 예술의 바다 DOCKING_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기획전 /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

2017 까사리빙이 선정한 Up&Coming designers 기획전_홈테이블데코페어 / 서울_코엑스

2017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석·박사전:同行 / 부산_아트센터

2017 효원목조형회 동문전_BFAA 국제아트페어 / 부산_벡스코

2017 매거진 CASA LIVING이 선정한 1월호 DESIGNER

2016 KCDF(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직영 온라인숍 작품 입점

2016 공예트렌드페어 창작공방관 / 서울_코엑스

2016 Be 30_효원목조형회 동문전_공예트렌드페어 / 서울_코엑스

2016 sbs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 주연배우 가구(테이블) 협찬

2016 제 42회 부산미술대전 공예부문 입선_부산시립미술관

2015 제 3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현대공예부문 특선_성남아트센터

2015 제 28회 성산미술대전 목공예부문 특선_성산아트홀

손동훈 Shon Donghoon

1. 작업노트

손동훈 작가는 단순히 결과물만이 아닌 작업의 프로세스를 디자인함으로써 계획과 변수들 사이에서 접점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100%시리즈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산업디자이너로써 그동안 수없이 만들어온 프로토타입 과정에 주목하였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예적인 재료로 재해석 하였다.. 형태를 경화를 시키기 위한 레진이나 본드와 같은 별도의 추가 재료 없이 에탄올과 같은 유기 용액과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100% 플라스틱만을 사용하였으며 용액이 증발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압력에 의하여 소재의 자연스러운 질감이 완성된다. 모든 작업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되었다.

2. Profile

손동훈은 아뜰리에 손의 설립자이자 디자이너이다. SOHN은 그의 성이자 한국어로 손, 그리고 크래프트 맨쉽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그의 사고의 원천은 시대를 아우르는 가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근거하며, 관찰과 실험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과를 졸업하였고 2년간의 삼성디자인멤버십 활동(2009 - 2010)을 거쳐 2010년부터 약 6년동안 삼성전자에서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키웠다. 스마트폰, 랩탑,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디자인은 물론 사용자 경험 디자인까지 실무를 진행하였다. 그가 디자인한 제품은 글로벌 시장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고 Pin-up award와 같은 국내 공모전을 비롯하여 IF award, red dot award 등 다수의 국제 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 2015년부터는 ATELIER SOHN을 설립하여 제품, 서비스 디자인을 기반으로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리서치 및 소재와 조형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밀라노 디자인 위크, 파리 디자인 위크, 바젤월드 등, 해외전시 참여를 통해 여러 매체로부터 신진 디자이너로서 주목을 받았다. 2017년에는 Ecal /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in Lausanne (로잔 예술학교)의 Design for Luxury and Craftsmanship (마스터 디자인 럭셔리 & 크래프트 맨십) 석사심화과정을 졸업하였고 지금까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인 Vacheron constantin, Christofle, Chopard, Hotel Trois Couronnes 등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기술에 기반한 IT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아트 디렉션, 제품, 오브제 작업을 통해 리빙, 럭셔리 산업에서도 디자이너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ATELIER SOHN을 운영함과 동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CARIN

Contemporary ARt IN stitute

갤러리 메르씨엘 비스는 2020년 4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2013년 오픈하여 국내외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해 온 갤러리 메르씨엘 비스는 bis를 떼어 내고 보다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전개해 나아가고자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Contemporary ART INstitute의 의미를 가진 현대미술연구소 carin카린은 일본 법인 cal.net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 예술의 전도자로 역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코리안 아트 파워를 세계에 널리 알리며, 세상의 재미난 요소를 지역에 소개하는 다양한 섞임을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린은 갤러리의 경계를 넘어, 산업과 예술의 멋진 섞임을 지원하고 기업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며 세계에 흐르는 예술의 감각을 고객에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과 겸임교수

現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겸임교수

학력

2020.09 ~ 서울대학교 디자인 박사과정

2016-2017 에칼 / 럭셔리 크래프트맨십 석사심화과정

2004-2011 한국예술종합학교 / 디자인 학사

활동 및 전시

DDP 디자인 페어 2020 공식 큐레이터

을지로 라이트웨이 2020 총괄 디렉터

공예 트렌드 페어 2019.

디디피 디자인페어 2019.

을지로 라이트웨이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2019, HUMANITY, HUMAN+COMMUNITY

인테리어 비엔날레 2018, 인테리어 어워드 선정작, 벨기에

살로네 샤뗄리떼 2018, 살로네 델 모바일 밀라노 / 부스 B15, 파빌리온 13-15 로 피에라 밀라노, 이태리

바젤월드, 세계 시계 및 주얼리 쇼

파리 디자인 위크 2016.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16.

서울 디자인 페어 ,삼성 디자인 멤버십 2010.

딜라이트 삼성전자 본관 전시 2010.

수상경력

2018 인테리어 비엔날레, 인테리어 어워드 선정작 / 벨기에

2013 iF 국제 디자인 어워드 Winner / 독일

2013 핀업 디자인 어워드_Winner / 한국

2010 레드닷 국제 디자인 어워드_Winner / 독일